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물거품'

전남도가 지난 10년 가까이 공을 들여온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이 끝내 물거품 됐다. '한빛원전 수동 정지' 파문 등 갑수축 증폭되고 있는 원전안전 대책이 발등의 불로 떠올랐고, 첨단 기기 확보를 통한 암 치료 메카로 도약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월 광주전남 공동추진위를 구성,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를 추진했다. 총사업비 2,500억원을 투입, 2012년 착공해 2017년 완공이 목표였다. 공동추진위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를 비롯, 중앙부처 등에 사업 추진을 지속 건의했지만, 정부의 제4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2012년~2016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고배를 마셨다. 이후 전남도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방사선 사고와 관련한 5개 센터 등 총사업비 5,670억원의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으로 규모를 키워 설립제안서를 원자력의학원 등에 제출했지만 이 역시 없던 일이 됐다. 이 시설이 들어서면 원전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수천억원에 달하는 최첨단 암치료기인 의료용 중입자가속기를 확보할 수 있어 국내 암 치료의 메

카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었다.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 대안으로 양성자치료센터, 중입자치료센터 등도 지속 건의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 사업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김영록 전남지사가 공약으로 추진하면서 다시 대두됐고, 전남도는 지난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불씨를 살렸다. 전남대 핵의학과 연구진이 수행한 용역은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의 정책·경제성 분석을 비롯, 원전산업 인프라를 배경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서남권에 국내원전의 26%가 위치해 있고, 중국 원전 위험에 상시 노출된 점 등 의학원 설립근거를 모색했고,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 및 사고 시 방사선 피폭환자 응급진료 등 종합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검토됐다. 여기에 지난 2010년 부산 기장에 한국원자력의학원 분원인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이 개소해 8개 암 진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의학원 설립 당위성을 집중 점검했다. 용역팀은 이후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을 대신해 '난치성 암 3대 입자치료센터' 건립을 제시했다. 도내 10만㎡ 부지에 연면적 2만㎡ 규모로, 사업비 5,480억원을 투입해 양성자·중입자·중성자 가속기 등 최첨단 의료기기 도입이 골짜기다. 하지만,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최근 재정부담을 이유로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은 물론 3대 입자치료센터 건립도 불가하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수익성과 타당성 등을 이유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인근에 위치한 중입자치료센터의 가속기 사업 주관기관이 서울대병원으로 이관된 점과 대선공약인 대전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이 무산된 점도 불가 이유로 제시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역시 우수 의료진 확보와 국내 수요, 수익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지난 10여년 간 유치에 주력해온 서남권 원자력의학원과 대안으로 나온 입자치료센터 모두 없던 일이 됐다. 이에 전남도는 입자치료센터 등을 대신한 새 사업 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막대한 사업비 등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추진이 불가능해 한빛원전 등 원전안전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의 경제적 타당성 지수(B/C)가 서남권(0.76)의 3분의 1에 불과한 0.26이었음에도 정부가 개원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지역차별 논란도 재점화 될 전망이다. /정근산 기자



한국 축구 4강 진출 14년

과기정통부 재정부담 등 난색 10여년 유치전 허사
3대 입자치료센터도 불가... 지역차별 논란 '재점화'



'광주 목사 납시오' 7일 광주항교 일원에서 열린 '제7회 광주 사직 단오제'에서 사직단에서 열리는 사직대제를 지내기 위해 관청을 나서는 광주 목사 출정을 재현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여수박람회장에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짓는다

전남도 건립안 마련... 1,149억 투입
경제성·산업경쟁력 등 타당성 확보

여수세계박람회장에 8,000㎡ 규모의 전시시설과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장을 갖춘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마이스 및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 특성 산업의 국제화 및 진흥을 위한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기본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컨벤션 전시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경제성과 산업 경쟁력 등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적정 건립 규모는 국제회의시설 규모로 전시장 8,000㎡, 3,000명이 수용 가능한 회의장 5,000㎡다. 건립 비용은 부지 매입비 포함 1,149억 원이다. 이같은 건립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1.02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립 부지는 산업 경쟁력을 위한 부지 면적 확보와 전시관 확충 가능성, 워터프론트(Water-Front) 형태의 특색있는 센터 구축을 위해 박람회

장 B부지로 제안했다. 운영 조직은 단독 법인 설립에 의한 간접운영 방식 형태로, 2분부 5팀 26명 규모의 운영 방안이 제시됐다. 재무성 분석 결과 센터 가동률 35%를 시작으로 매년 5%씩 늘려 운영 7년차부터 65%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4년째부터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권의 대규모 MICE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에 대응한 대규모 MICE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은 호텔, 중소형 컨벤션시설, 풍부한 관광자원 등 MICE 연관 시설이 이미 구축돼 있고, 해양, 석유화학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센터 건립의 최적지로 꼽혔다. 박람회장 사후활용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이번에 지역에 적합한 건립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정근산 기자

오늘 '헬기사격' 증인 6명 출석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8)의 재판이 10일 광주에서 열린다. 9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 심리로 10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전씨는 건강상 등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선고기일을 제외하곤 재판에 출석치 않는다. 이날 공판에선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하거나 관련 기록을 수집한 6명이 증인으로 나선다. 특히, 30여년간 5·18 관련 증언과 공공기록을 수집한 정수만 전 5·18 유족 회장이 재판에 출석키로 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공판에선 5명의 증인이 법정에서 출석해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 등을 쏟아냈다. 전씨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을 통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광민 기자

www.kbihanam.com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합니다!

지식산업센터 **kbi**하남
Knowledge Based Industry Center

광주의 미래를 담습니다.

지식산업센터
kbi하남!

광주의 엔진은 하남산단!
하남산단의 엔진은 KBI하남!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최고의 업무환경을 제공합니다!

최적화된 비즈니스 공간

회의실, 세미나실 등 다양한 용도의 업무 편의시설

다양한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카페, 병원, 은행, 편의점, 코인발레방 등

풍부한 엘리베이터

총 11대의 엘리베이터 시설 대기시간 단축

주차 스트레스 해소

총 600대의 100% 주차시 주차공간 확보

최고의 휴게 환경

탁 트인 무등산 전망, 빌라나, 옥상정원 등 휴게 공간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조닝, 일렉트릭 파워 네트워크, CCTV모니터링

현장 및 분양정보관 위치

무등산 조망권의 친환경 오피스 / 풀옵션 기숙사 / 스마트 제조동 / 스트리트형 근린상가

합리적인 분양가와 파격적인 금융혜택 및 세제혜택!

분양상담전화 **062-710-7707**

최대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57 연면적 60,262.04㎡ 건축면적 7,716.96㎡ 용적률 349.75% 판매율 56.95% 규모 지하 2F / 지상 15F 입주대상업종 제조업/첨단벤처기업/IT산업/엔지니어링/정보통신/연구개발/지식산업/광고디자인산업/영상산업 등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7.5% 감면

중도금 무이자
다양한 장기저리 융자

부가가치세 100% 환급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광역시

나명산업개발(주) 시공사

하나대투자기자산업운용사

남화토건주식회사 시공사

에트라 | 시흥대행사